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2.(금) 10:10	배포 일시	2022. 12. 1.(목)

담당 부서	소재융합산업정책관 철강세라믹과	책임자	과 장	오충종	(044-203-4290)
		담당자	사무관	김다은	(044-203-4292)

산업부 1차관,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산업 현장 방문

- 철강수급 차질 없도록 업계의 적극적 노력 요청 -

-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 협조요청 등 당부 -

-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 약속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**은 12.2.(금) 오전 **㈜세아베스틸 군산공장**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산업 현장을 점검하였다.

○ 금번 현장방문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**철강재 생산 및 출하 영향을 모니터링하여** 만일의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**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**하고자 진행되었다.

<산업부 1차관 현장방문 개요>

○ 일시/장소 : '22.12.2.(금) 10:10~11:00 / ㈜세아베스틸 군산공장

○ 참석자 : 산업부(장영진 1차관), 세아베스틸, 세아제강, 세아씨엠, 세아L&S, 철강협회

○ 논의내용 : 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철강산업 피해 현황 및 전망
② 현장애로 및 對 정부 건의사항

□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재의 경우 육로·해상을 포함한 **기존 출하량의 절반가량만 출하** 중이며*, 일부 기업의 경우 **부원료 반입 등에도 애로**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.

* 5대 철강사(포스코, 현대제철, 동국제강, 세아제강, KG스틸) 누적 출하차질 금액 약 8,700억원 추정 (철강업계 약 1조 1,000억원 추정, 12.1일 기준)

○ 업계는 사태가 **장기화될 경우 공장 내 적재공간 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**할 우려도 있는 만큼, **피해가 심화되기 전에 사태가 해결**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건의하였다.

□ 장영진 1차관은 “철강은 자동차·조선 등의 핵심소재로서 현 사태가 **철강 수급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가 각별히 노력**하고 특히 운송방해 등 **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 등에 즉시 협조 요청**할 것”을 당부하는 한편,

○ “정부도 **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**하게 대응해 나갈 것”임을 강조했다.

○ 또한 “주요 협회들을 중심으로 중소 화주의 **손해발생에 대한 소송대행 등을 검토**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”며 “**철강협회**를 중심으로 업계도 **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**해줄 것”을 요청하였다.

○ 더불어 “**9월 태풍피해**,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**철강수요 감소** 등 연이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철강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바,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**필요한 지원을 제공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산업통상자원부는 **시멘트**의 경우 11.29.(화) **업무개시명령** 발동 이후 12.1.(목) 기준 하루 출하량 약 8.24만톤으로, **평시**(동절기 약 18만톤) **대비 약 46%까지 상승**하는 등 출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